

法典에서 뽑은 여성사 연구자료

梨大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韓國女性關係資料集」 '근세편'

조선사회 통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전류에서 여성관계 기사를 발췌, 번역, 정리한 '韓國女性關係資料集' 「近世篇; 法典」 상·하권(이화여대 출판부)이 최근 출간돼 한국여성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자료집은 특히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국적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연원이 되는 조선시대의 유교이데올로기가 당대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통치의 기본지침인 법전을 중심으로 관계자료를 발췌함으로써 통치구조 속의 여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전해준다는 것이다.

“僧尼는 도성 내에 들어올 수 없다. 함부로 들어온 자는 장형 1백에 처하여 殘邑의 노비로 한다”든가 “貫鄕이 다르다고 하여도 姓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음을 금계로 정한다”든가 하는 기사에서 우리는 당대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료발췌의 텍스트로는 상권이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各司受教」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大典會通」 「六典條例」 등을 다루었는데, 이같은 조선시대의 법전들은 「經國大典」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시대에 따라 증보·



감삭된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의 변화에서 여성의 지위와 인식의 변화를 또한 추적해볼 수도 있다.

하권은 正祖 연간에 朴一源이 지은 「秋官志」에서 해당자료를 주로 뽑는 한편, 「受教定例」 「律例要覽」 「刑典事目」 등에서도 여성관계 기사를 따로 뽑아 실었다. 이밖에도 하권에는 우리나라 법전은 아니지만 「경국대전」의 편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중국의 「大明律」을

번역한 「大明律直解」도 아울러 수록해 좋은 참조가 되도록 했다.

예컨대 “중으로서 양인부녀자를 간통한 자는 일반간통죄보다 1등을 가중하며, 양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계집종을 간통한 자는 일반간통죄보다 1등을 감한다. 노비끼리 서로 간통한 경우에는 일반간통죄로 논한다”는 「大明律」의 刑律 등은 주의깊게 살펴볼지하다. 우리나라 법전인 「受教輯錄」의 刑典에는 “양반의 처녀를 겁탈한 죄인은 주범·중범을 나누지 말고 참형에 처하라. 常人 여자를 겁탈한 죄인은 常律에 따라 시행하라”고 돼 있다.

한편, 지난 1977년부터 장기계획으로 이 「한국여성관계자료집」을 꾸준히 펴내고 있는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소장 鄭世華) 측에 따르면, 이 「근세편; 법전」 상·하권에 이어 금년 안으로 조선조의 유학자·실학자들의 문집에서 뽑아낸 여성관계 기사를 한권으로 묶어낼 예정. 연구원 朴珍淑씨는 이미 자료수합이 끝난 상태에서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 다시 추리고 정리하느라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말한다.

또하나 현재 원고작업이 모두 끝나고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근세편; 종교·무속」인데, 사머니즘을 비롯한 한국의 자생종교

관련 문헌에서 자료를 취합한 책이다. 이와 함께 「근세편」의 대미를 이룰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조선왕조실록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실록편」은 「근세편」의 다른 자료집들이 주제별로 묶여지는데 반해 왕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그대로 발췌해 편년체식으로 배열한다는 것인데, 워낙 분량이 방대해 1~2년 사이에 작업이 완료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전망이다.

참고로 「한국여성관계자료집」의 既刊목록과 그 대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古代篇」(1977): 「三國遺事」 「三國史記」 및 中·日의 사료에서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의 여성관계자료 발췌.

② 「近代篇」 상권(1979) 및 하권(1980):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에서 구한말시대 여성관계자료 발췌. 상권은 1897~1906년, 하권은 1907~1910년까지.

③ 「中世篇」 상권(1984) 및 중권(1985):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를 주축으로 고려시대 여성관계자료 발췌.

④ 「中世篇」 하권(1986): 고려시대에 간행됐던 문집이나 金石文 등에서 여성관계자료 발췌.

—강철주 기자

「聖書의 세계」 출간기념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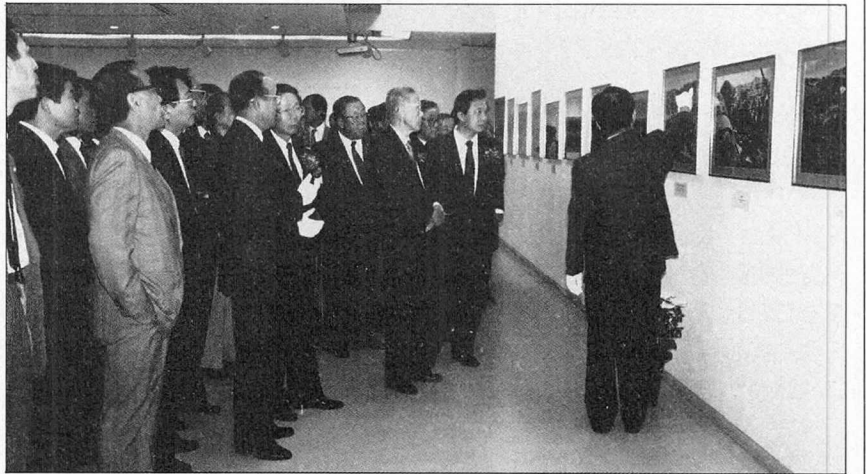
동아출판사 주최... 세계각국 성지 113점 전시

동아출판사가 「聖書의 세계」(전24권) 출간을 기념하는 뜻으로 마련한 '성지사진 전시회'가 10월5일부터 10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 2층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책에 수록된 세계각국의 성지사진 110여점을 골라 공개하고 있는데, 기독교편 10권에 이어 카톨릭편 14권의 완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도 겸한 자리. 전시회 첫날은 김남수 한국주교회의의장과 한경직 영락교회원로목사를 비롯,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데, 마침내 44차 세계성체대회가 열리고 있어 이 행사의 의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엔 이반 디아스 주한교황청대사 등 목회·성직자 500여명과 언론·출판계, 정계와 일반기업체의 인사 등 모두 1100여명이 전시회를 돌아보

았다.

전시회에 선보인 사진은 20×24인치 이상 크기로 모두 113점. 기독교 발상지인 성팔레스타인을 주무대로 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비아 돌로로사'라든가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의 탄생교회 등 성서의 기록이 살아있는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또 가톨릭의 총본산인 바티칸 교황청을 비롯해서 프랑스 몽생미셸만의 섬에 세워진 베네딕도회 수도원의 환상적인 모습 등 유럽 각지의 독특한 건축물도 종교예술의 극치를 느끼게 한다.

이 가운데는 특히 예루살렘의 계단바위 같은 촬영금지구역을 특별촬영한 사진도 걸려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충남 海美에 있는 병인박해 순교자의 탑을 비롯한 국내 성지사진



성지사진을 돌아보고 있는 각계 인사들

은 우리나라 종교역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성서의 세계」에 수록된 사진 중에서 160컷의 슬라이드를 50분짜리 드라마로 엮어 상영, 성서의 세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직접 보고 들으며 신·구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한편 전시회에 참석했던 한경직목사는 “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지켜오며

세계 곳곳에 미쳤던 영향은 예술,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어 그 현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이번 성지사진 전시회는 성지순례를 열망하던 신자들은 물론, 이제껏 성경을 외경스럽게만 보아오던 일반인까지도 오랜 역사를 품어온 종교적 향취를 흠뻑 맞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김지원 기자